노동권리찾기 상담전화

인천	032-525-0497
안산 시흥	031-491-7097
대전충북	043-236-5077
경남	1899-2090
광주	062-953-4969
전남서남	061-462-7177
부산 양산	051-637-7433
서울	02-2636-2148
서울남부	02-867-2260
포항	054-278-1339

바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15년 1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7

2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의도
3면 칼럼 / 아빠라는 이름의 노동자
4면 5면 기획 / 공단구조 고도화 이것이 문제다
6면 이주 배경 아이들에 대한 차별
7면 교대제와 노동자 건강
8면 불법파견 5문5답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장그래 죽이기 종합대책'

정규직의 꿈을 버리고 기간제, 파견제, 사내하청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선전포고

박근혜 정부가 연말 분위기에 들뜬 2014년 12월29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다른 말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부안'이다. 모두 84개항에 이르는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55세 이상 파견 전면허용,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다.
정부는 이 종합대책을 2015년 3월까지 노사정위에서 합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합의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을 동원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개악할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법안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개악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가이드라인으로 강제할 태세다.
탐욕의 끝이 없는 재계에 오랜 숙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더 많이 더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규직의 손쉬운 해고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핑계를 대며.

기사 2면 이어감

해고 쉽게, 임금 적게, 비정규직 늘리는 노동유연화
모든 노동자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정부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재벌의 배를 불리겠다는 재계의 숙원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나섰다.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며 모든 방향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 불황 탈출방법으로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을 열지 않고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는 길을 잡았다. 비정규직의 대명사인 '장그래'는 정규직을 꿈꾸며 고통스런 계약기간 2년을 버텼는데 이 꿈을 포기하고 4년 계약직, 파견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로 전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누가 '장그래'의 꿈과 미래를 짓밟으려 하는가.

84개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비정규직 사용 확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기간제 노동자를 늘린다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확대와 55세 이상 전면허용으로 파견노동자를 늘린다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 사내하청의 사용을 늘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규직의 해고요건 완화는 현재의 정규직을 손쉽게 정리하고 그 자리를 기간제, 파견제, 사내하도급 노동자로 대체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다.

떡고물 받아먹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지키고 처우를 개선하다며 포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항이 ▲비정규직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적용 ▲기간제 이직수당 임금총액 10% 지급 ▲생명, 안전, 보건 핵심업무는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이다.

보리자루 하나 던져주고 평생 머슴으로 살라는 것과 같다. 비정규직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적용은 그 금액도 매우 적고 재계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종합대책에서 밝히고 있듯 이 조항은 퇴직연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자가 자주 직장을 옮겨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게 하고 규모를 키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만들어 사회 재투자에 쓰려는 속셈이다.

이직수당의 신설은 기업의 정규직 고용의무에 면죄부를 주고 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현재 법률은 2년 이상 지속하는 업무로 일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부분 사업주들은 2년 채우기 전 계약해지 한다.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 처벌과 강제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계약직으로 2년 일한 '장그래'가 35세가 되어 2년 더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사업주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된다. 회사는 '장그래'에게 2년 임금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생명 · 안전 · 보건 핵심업무의 비정규직 사용 금지는 ▲여객선의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로 범위가 아주 협소하다. 인천공항의 87%에 이르는 직,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1% 이내의 극소수에게 적용해 실효성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한 비정규직 과다사용 여론을 무마하려고 생색 낸 것에 불과하다. 인천공항 검색대 보안요원, 철도 정비업무, 여객선 항해사도 비정규직 사용금지 업무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올 3월까지 합의를 시도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계 대표는 한국노총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틀을 깬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막아낼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야당도 없다. 박근혜 정권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국회 다수 의석확보 ▲지리멸렬한 야당 ▲언론 장악 통한 여론호도 가능 ▲노동운동의 저항 약화라고 볼 수 있다. 법 · 제도 · 고용구조는 사회적 힘의 관계에 따라 바뀐다.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가리지 않고 단결해 막아야 한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를 빼앗고 모든 국민을 '기간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로 만들려는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정된 삶과 미래를 꿈꾸려면 싸워야 한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반대의사를 투쟁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사회여론을 조성했을 때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할지 저울질 할 것이다.

▲ 금속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판단, 조기에 투쟁 태세를 갖추는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11월9일 오후 서울 청계천 영풍문고 앞에 모인 노조 조합원들은 을지로, 종로를 돌아 대학로까지 두 시간 동안 행진해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자대회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분류		현행	종합대책(정부안)	개정안(노동계)
기간제		2년 이상 사용 시 정규직 고용의무	· 35세 이상 4년 허용 ·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적용 · 정규직 고용 안할시 이직수당(2년 이상 연장기간 총급여의 10%) 지급	· 상시업무 정규직고용 원칙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근로자 파견제		32개 업종만 허용	· 파견허용 업종확대 · 55세 이상 전면허용	· 근로자 파견금지 ·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기간제, 파견제 사용제한		신설	생명, 안전, 보건 핵심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제한 (선장, 기관사, 조종사 등)	선장, 기장 등 소수 1%만 적용해 실효성 없음
해고	정리해고	정리해고 요건충족	정리해고 뒤 재고용 절차 구체화	긴박한 경영상 필요요건 강화
	징계 (일반)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금지	'실적', '업무성과'를 통한 저성과자 해고가능	반대(평가기준 없음)
사내하도급		신설	원청회사의 산업안전, 직업훈련, 기업복지는 불법파견 요소에서 제외	· 상시업무 직접고용의 원칙 (간접고용 금지) · 동일가치 노동 차별금지 적용

아빠라는 이름의 노동자

장시간 노동 속에 가족 구실 못하는 노동자들

▲ 최근 출시된 신형 카니발은 광고 컨셉이 '아빠가 가르쳐준 세상'이다. 캠핑이나 여행 등 아빠들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를 컨셉화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카니발을 사서 여행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아빠들은 가정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야근과 잔업 후 목에 걸린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돼지껍데기에 소주 한 잔을 걸치고 거나하게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시장에서 산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들어오시던 모습은 우리가 거쳐 온 산업화 시대의 아빠의 전형이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세상은 '프랜대디 Friend+Daddy'의 시대다. 이제 아빠들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있다. 양육의 보조자가 아니라 주역으로 등장해 육아시장과 교육시장의 주요 소비자로 등장하고 있다.

예전 자동차회사들은 SUV나 RV 차량 광고할 때 근육질의 남자들을 내보내 거침없이 오프로드를 달리는 '남자다움'을 강조했다. 최근 출시한 신형 카니발은 광고 컨셉이 '아빠가 가르쳐준 세상'이다. 캠핑이나 여행 등 아빠들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를 컨셉화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카니발을 사서 여행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실 '프랜대디' 현상은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상대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늘려야 가능하다. 지난 대선에서 손학규 민주당 후보 캠프의 슬로건처럼 '저녁 있는 삶'과 '주말 있는 삶'을 전제해야, 즉 절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강도가 줄어야 아빠들은 공장에서, 회사에서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36개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연평균 근무시간이 OECD 평균 1,765시간보다 훨씬 높은 2,090시간으로 회원국 최고 근로시간국가로 기록됐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34위를 기록,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지수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터키뿐이었다. 놀라운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까지 감안한다면 한국인의 실제 노동시간은 훨씬 더 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노동현실 속에서 우리 아빠라는 이름의 노동자들은 공장과 회사에서 눈치보고, "왜 다른 집 아빠들처럼 놀아주지 못하느냐"는 아이들의 구박에 집에서도 눈치를 보니 이리저리 처량하고 불쌍할 뿐이다.

김범우 광고회사노동자

어렵더라도 희망의 오뚝이처럼 굳건히 우뚝 섭시다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에 뒤척이다 일어났습니다. 어린동생들을 챙겨 학교 보내고 솥뚜껑에 덮어둔 눅눅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 시절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죠. 방 한쪽에 누워있는 엄마, 어린 동생 다섯의 생계를 책임진 열다섯 살 소녀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터미널로 뛰어가기 바빴습니다. 그곳엔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난 분홍소세지에 흰 밀가루 옷을 입히고 튀겨 핫도그를 투명 유리 진열장에 넣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여덟 식구 생계와 엄마 약값은 늘 부족했습니다.

나는 어린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언니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무조건 희생할 수 없다. 모두가 잘 되는 길을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가정 경제는 큰언니인 내가, 집 안 살림부터 청소와 동생들 챙기기는 바로 밑에 동생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며 나를 도와 희생했습니다. 큰언니인 나 보다 더…….

모두가 잘되기 위한 노력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음료수병을 자루에 모아 빈병수집소에 일주일 두 번 가기, 공부 잘하는 남동생은 동급생 과외하기, 그 밑의 동생들은 코피 쏟으며 열심 공부하기.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막내에게 관대하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 사회의 구성원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가 닥쳤습니다. 가족들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과거가 있었기에 다시 오뚝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오뚝이 말입니다.

노동자 여러분 요즘 다시 어렵지요?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듯합니다. 어쩌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어려운 시기를 견딘 나, 가족들, 국민들. 다시 희망 찾기를 한다면 굳건히 우뚝 선 오뚝이가 될 것입니다.

부산 녹산공단에서 50대 여성노동자

사업장에서 겪는 노동법적 문제! 금속 조합원들이 겪는 고민을
금속노조 법률원과 함께 해결하세요
전화 02-2670-9500 팩스 02-2636-4019
전화 055-262-3984 팩스 055-262-3985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금속노조 법률원의 조합원 상담사업
해고 | 징계 | 직장내 괴롭힘 | 계약기간만료임금체불 | 퇴직금 퇴직연금
비정규직 차별 | 산업재해 | 출산휴가 육아휴직 | 부당노동행위

공단구조고도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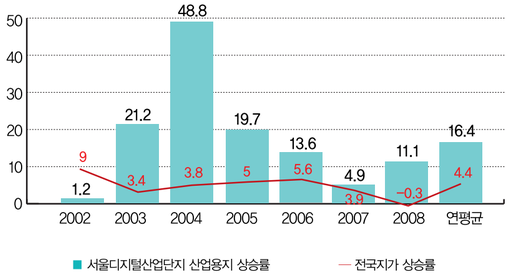
부동산 투기 활성화, 저임금 불안한 일자리, 국가산업단지의 기능 훼손

[필자의 말] 2014년 12월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화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아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별로 공단구조고도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공단구조고도화는 2009년 12월 인천남동, 반월시화, 구미, 익산 등 네 개 시범단지, 2013년 주안, 부평, 창원, 군산, 군산2, 대불, 서울디지털 등 확산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계속 추가하고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그 실체와 대응방향을 살펴본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 첨단화 실체 ①
부동산 투기의 활성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산업단지인 구로공단 재개발은 1997년 7월18일 '구로산업단지 첨단화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했다. 당시 서울시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면서 저리융자로 200억원이나 건설비 75%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아파트형 공장 건설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등록세를 면제했다. 5년 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깎아 줬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고 기존 제조업 중대형 공장들은 땅값 차익을 남기고 떠나거나 재개발을 꾀했다.

전국 지가 및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용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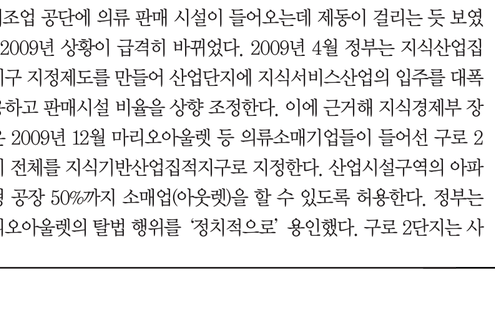


이 단지에 2000년대 초반까지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이 들어섰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변화의 주요 원인은 비제조서비스업이었다. 이 단지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줄고, IT정보통신, 과학기술,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아파트형 공장 건설업주들은 분양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면적을 쪼개 소규모 기업을 유치했다. 수익률을 보고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자본들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몰려들었다. 이 단지의 임대사업자는 2003년 60개에서 2008년 1,410개로 늘어났다. 이들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은 '전부임대사업자'였다. 생산기여도가 낮은 전부임대사업자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임대사업을 주도했다.

이 전부임대사업자들의 공장보유 기간이 3년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08년까지 전부임대사업자의 82%가 3년도 안 돼 시세차익을 남기고 떠났다. 5년 이상 소유한 비율은 0.5%도 안 된다〈산업입지연구센터, 2009〉. 이 업자들에게 아파트형 공장은 산업생산 공간이 아니라 시세차익과 준공 이후 임대수익을 위한 재테크 수단이었다.

이 단지 공장용지 분양가는 2000년대 상반기에 1970년대 공단 초기 분양가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분양가 증가율이 9.4%에 이른다. 산업용지의 땅값 역시 크게 올랐다. 공시지가로 비교하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가 상승률은 전국의 지가 상승률보다 무려 12%포인트 이상 높다. 2004년에 48.8%나 상승했다. '구로산업단지 첨단화'는 부동산 투기 활성화였다. 제조업 기업들이 정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공단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 첨단화 실체 ②
산업지구가 상업지구로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1999년 8월 '시설의 30%를 할애해서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구로공단 2공단에 위치한 의류제조업체들은 공장시설의 대부분을 할인매장으로 임대하거나 용도 변경하기 시작했다. 자사 OEM 제품은 물론 타사 브랜드 제품도 판매하는 '아울렛'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아래 산단공)은 산업시설구역을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해 아울렛을 양성화하는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산업자원부 장관에 건의했다. 산단공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산업단지 기능을 훼손하는 입주기업의 탈법행위를 규제해야 함에도 스스로 기능을 훼손하는 운영방안을 건의했다. 2004년 11월 산자부 장관은 산단공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지원시설구역을 확대한다.

의류제조업체들의 판매기업 탈바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리오아울렛' 등은 2관과 3관을 추가 건립해 의류소매업을 확대한다. 이들은 제조업 공단에 상업판매시설을 더욱 노골적으로 밀어 넣었다. 도를 넘었다고 본 산단공은 2007년 6월 마리오아울렛 2관에 대해 입주계약 해지 조치를 했다. 마리오아울렛은 '입주계약해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7년 10월, 2008년 11월 각각 1심, 2심에서 산단공의 손을 들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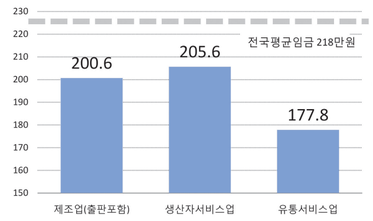
제조업 공단에 의류 판매 시설이 들어오는데 제동이 걸리는 듯 보였다. 2009년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다. 2009년 4월 정부는 지식산업집적지구 지정제도를 만들어 산업단지에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대폭 허용하고 판매시설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근거해 지식경제부 장관은 2009년 12월 마리오아울렛 등 의류소매기업들이 들어선 구로 2단지 전체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한다. 산업시설구역의 아파트형 공장 50%까지 소매업(아웃렛)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마리오아울렛의 탈법 행위를 '정치적으로' 용인했다. 구로 2단지는 사실상 '상업지구'로 바뀌었다.

구로공단시절 2단지에 대규모 의류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있었다. 〈그림2〉에서 보듯 첨단화 이후 산업시설이 크게 줄고 비제조업이 들어설 수 있는 지원시설 구역이 늘어났다. 2000년 1,657,000㎡에서 2010년 52,975,000㎡로 늘었다. 지원시설 구역에 판매시설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다. 이 자리에 '마리오 아울렛', 'W몰', '현대 아울렛' 등 종합의류소매업을 할 수 있는 아울렛 회사들이 들어섰다. 국가산업단지에 부를 생산하는 산업자본 말고 이익을 분배하는 상업자본이 자신의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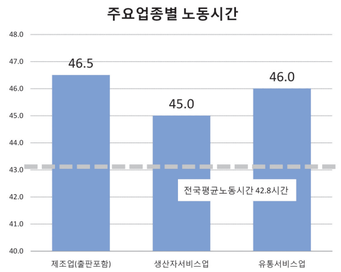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 첨단화 실체 ③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1990년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40대 여성노동력의 저임금 노동시장이 발달했다. 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제조업 하청자본들이 공단으로 들어왔다. 2000년 이후 공단이 첨단화하고 노동인구가 크게 늘었다. 공단의 모습은 크게 변화했다.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주요업종별 평균임금



주요업종별 노동시간



2011년 3,070명, 2013년 2,809명의 공단노동자를 상대로 노동환경 조사를 했다. 3년 동안 실질임금은 0.9%올라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면서 하향평준화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8.6~15.7%였다. 비정규직 비중은 51.9~45.6%로 두 명중 한 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47.2~46.5시간 이었다. 임금은 점점 하향평준화하고 전국 평균보다 적게 받으며 더 많이 일하고 있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화려한 불빛이라는 수식어로 치장하고 있으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전염병처럼 널리 퍼져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새로운 노동시장을 주도해야할 정보통신산업, 사업지원서비스산업 등 생산자서비스업조차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 했다.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52.9%로 제조업 비정규직 비율 48.6%보다 높다. 이 단지에 첨단 산업이라 불리는 업종이 들어왔지만 생산직 · 미숙련직의 노동조건은 올라가지 않고 기술직 · 사무직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했다.

2012년 구로근로자복지센터가 진행한 구로구 근로자 복지요구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상쇄할 만큼 기업별 수준의 복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산업분야라고 해서 제조업보다 사내복지기금이 더 많지 않고 조성률은 15.5%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지원제도, 출산과 육아휴직에 필요한 임금보존방안도 거의 없다. 심지어 식비마저 조사대상의 53.4%만 받았다.

2011년, 2013년 실질임금인상률(노동자의 미래)

		2011 (물가지수 104)		2013 (물가지수 107.67)		
		임금	실질임금	임금	실질임금	실질임금 인상률
임금구간	0~4860	105.9	101.8	114.6	106.4	4.5
	4860~6000	14.2.2	136.7	139.3	129.4	-5.4
	6000~7500	172.5	165.9	163.2	151.6	-8.6
	7500~10000	212.3	204.1	203.8	189.3	-7.3
	10000~	332.2	319.4	324.4	301.3	-5.7

2000년 이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건물가격 추이 (산단공 서울본부, 2014)

		2000년	2005년	2010년	2014.8월
용지가격	(산업시설) A건물	770,000	1,670,000	2,740,000	3,457,000
	(지원시설) B건물	730,000	1,620,000	3,170,000	3,900,000
	(공공시설) C건물	730,000	1,360,000	1,980,000	2,320,000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지대는 2010년 이후 진정세를 나타냈지만 2000년 2005년 2010년 사이 각각 두 배 가까이 올랐다. 2000년에 비해 2010년 4.5배 가까이 올랐다. 기업주들은 지대 부담이 높아지면 손실분을 만회하려고 임금을 매우 낮게 억제한다. 기업주들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으면 사업을 포기하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철수한다. 상업자본과 투기자본이 수익을 극대화하면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오늘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들은 15년 동안 산업단지 첨단화의 결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은 전국에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전염병처럼 퍼트릴 것이다.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어디에서 왔냐고 묻지 마세요

이주 배경 아이들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 거둬야

〈이주민과 함께〉가 이주 배경 아이들과 '소풍' 모임을 시작했다. 소풍을 시작하면서 이주 배경 어린이들의 부모들을 만나는 일이 잦았다. 부모들은 이주민이다.

이 부모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딸에게 동화책을 같이 보며 모르는 단어를 설명해주기를 바라거나 한국의 학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구하거나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묻기도 한다.

어떤 부모는 올해부터 학습지 교육 지원을 받는데 방문 교사는 딱 한번 집에 왔고 아이가 혼자 풀 수 없는 학습지가 쌓여간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를 마주하기도 한다.

모하마드(가명)의 아버지는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집 근처 일반학교를 다니기를 원했다. 한국인인 아들이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너무 늦게 한국에 데려온 게 아닌가 걱정하면서 말이다.

모하마드는 2000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따라 종종 〈이주민과 함께〉 사무실에 놀러왔고 사무실 동료들은 어린 모하마드를 무척 귀여워했다. 그러다 가정 사정으로 가족이 잠시 떨어져 살았다.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 일을 했고 모하마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친척들 보살핌 속에서 자랐다. 9년이 흐른 뒤 가족은 한국에서 재결합했다.

다시 만난 모하마드는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릴 적 우리 사무실에 놀러 온 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해서 한국어공부를 시작했다. 다른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돌아가며 국어책을 같이 읽고 뜻풀이를 하고 쪽지시험도 봤다. 하나하나 새로 익혀가는 재미 때문인지 1주일에 한 번 사무실에 빠짐없이 나와 공부하고 있다. 이어 수학공부도 시작했다. 〈이주민과 함께〉 사무실이 이주 배경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공부방 역할도 하게 된 것이다.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축구선수를 하고 싶다는 모하마드. 이 아이가 축구선수를 하든, 축구를 사랑하는 어른이 되든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아이를 응원하고 격려하려 한다.

이 모임의 이름은 '소풍'이므로 소풍이야기로 돌아가자. 지난해 가을 '소풍'은 부산의 산복도로 버스투어로 다녀왔다. 부산역 광장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버스에 올랐다. 매축지 마을에서 시작한 여행은 옛 백제병원 앞에서 끝났다. 일제 강점기에 바다를 메운 땅에 만든 매축지 마을의 일부는 고층 아파트로 변했고 나머지 반쪽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소풍에서 부산과 한국의 역사를 어렴풋하게나마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어른의 욕심이었던 모양이다. 아이들은 서로 깔깔거리며 뛰어다녔고 투어 설명을 들을 때보다 과자를 먹고 장난칠 때 더 즐거워 보였다.

연신 배고프다는 아이들을 달래다 투어가 끝나자마자 부산역 맞은편 상해거리의 중국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짜장면과 짬뽕을 취향에 따라 주문했다. 이때였다. 주문을 받는 사람이 한 아이를 가리키며, 너는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이아이는 대뜸 "집에서 왔어요"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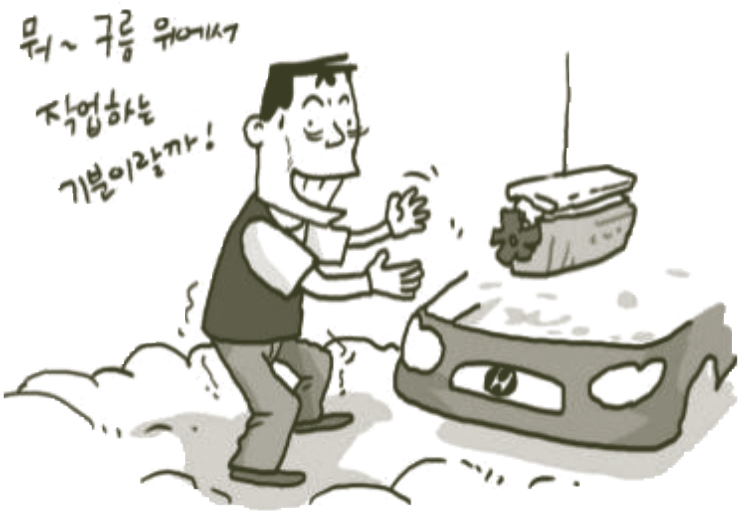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는 이주해 온 아버지를 닮아 까무잡잡한 피부에 큰 눈을 갖고 있다. 어쩌면 이 때문에 매번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들었을 터였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지만 어른이 묻는 질문이라 퉁명스럽게라도 대답했던 아이. 그러나 눈치 없는 주문 받는 사람은 다시 묻는다, "집에서 왔겠지. 그래 어느 나라에서 왔노?"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 보시는데요?" 서둘러 내가 대꾸해버렸다. 아이에게 미안하고 속상해서.

아이들과 다닐 때마다 사람들 시선에 불편해지곤 한다. 두 번 세 번 돌아보는 사람들, 아이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들은 종종 나와 얘기하기보다 핸드폰을 붙잡고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나조차도 불쾌한데 아이들은 어떨까? 아이들에게 그저 매사에 '당당하라' 고만 말하면 되는 걸까?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도 아닌 척 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선이, 당신의 그 질문이 아이에게 폭력이라고 매번 말해야 하는 걸까? 왜 매번 아이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다 필요하다고 한다. 이주 배경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온 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 아이들은 조금도 특별하지 않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할 뿐이다.

〈이주민과 함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는 이주해 온 아버지를 닮아 까무잡잡한 피부에 큰 눈을 갖고 있다. 어쩌면 이 때문에 매번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들었을 터였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지만 어른이 묻는 질문이라 퉁명스럽게라도 대답했던 아이. 그러나 눈치 없는 주문 받는 사람은 다시 묻는다, "집에서 왔겠지. 그래 어느 나라에서 왔노?"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 보시는데요?" 서둘러 내가 대꾸해버렸다. 아이에게 미안하고 속상해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그린 그림.



교대제, 노동자 삶과 건강을 파괴하는 독

한국은 교대근무를 포함한 야간근무가 일상이다. 사업주들이 자신이 소유한 생산시설을 지속 가동해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교대근무를 고집하고 있다.

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치명적인 이유는 인간의 신체와 사회적 삶의 대부분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도록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심야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 문제에 대한 사회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교대제 개선 논의에서 빠져 있다.

교대제 작업자에게 가장 흔한 위장질환

교대제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은 변비와 설사 같은 위장 습관의 변화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변비, 남성은 소화불량이나 위장 약물 복용이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 때 발생한 소화 불량 증상은 정상근무로 바뀌면 없어지지만 늘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질병이 될 수 있다. 위장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음식 섭취 습관의 변화 때문이다.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위험 및 악화

스웨덴의 크누트손 (Knutsson A. 1986년)은 504명의 제지공장 노동자들을 15년간 추적 조사했다. 교대근무자들과 주간근무자들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11년에서 15년 동안 교대근무한 노동자는 위험도가 2.2배, 16년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경우 2.8배로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은 불안, 직무 불만족, 가족 사이 갈등, 수면부족, 피로 등과 연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면장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시간은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일반 성인의 평균 수면시간 보다 적다.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는 생물학적 수면 리듬 교란과 소음 등 주변 환경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 교대근무로 인해 수면주기가 생활주기와 일치하지 않는데다 주변 환경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교대근무자는 잠을 자야할 때 제대로 못자서 만성으로 수면이 부족하다. 깨어있어야 할 때 제대로 깨어있기 어려운 '주간 졸림'이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교대제는 발암 물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인체에 발암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직업, 환경문제, 식습관 등에 대해 발암의 위험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2007년 도장작업, 소방업무, 야간노동의 발암성을 평가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야간 교대제의 인체 발암성을 납이나 디젤연소 물질에 버금가는 유력한 발암물질(2A)로 발표했다.

교대 근무는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교대근무 노동자가 앓고 있는 질환들이 교대근무에 따라 악화할 수 있다. 교대근무 시간에 따른 생물학적 리듬의 파괴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 수면장애나 수면 박탈로 악화할 수 있는 질환들도 교대근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천식과 당뇨병, 간질 등을 들 수 있다.

교대 근무로 인해 노동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교대 근무는 건강상의 장애만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 노동자들의 일상을 파괴한다. 설령 교대근무에 따른 수면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내더라도 교대근무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장애를 일으킨다. 경우에 따라 교대근무로 인한 사회생활의 파괴가 수면장애보다 더 많은 불만사항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핵발전소 노동자 부인들을 대상으로 남편의 교대근무가 자신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조사한 다른 나라의 한 연구에서 부인들 반 이상이 남편의 근무스케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부인들의 70% 이상이 남편의 교대근무 때문에 가끔 혹은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대근무를 하거나 교대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노동자들이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들에 비해 이혼율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교대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다. 교대제는 우리 사회에 공공필수 영역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의 이윤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교대제를 실행하고 있다. 교대제 관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대제는 장시간 노동과 긴밀히 관련 있어 더욱 규제해야 한다.

당장 사업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폐지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반드시 사업주에게 야간 근무 시 2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요구해야 한다. 수면 장소도 요구해야 한다. 근무 시간 중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음식물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다. 교대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권고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제조업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입니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불법파견에 대한 궁금증

지난해 9월18일, 19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제조업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2월4일 창원지방법원도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쌍용자동차까지 완성차 공장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문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문1 지난해 9월 현대·기아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판결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1 제조업 사내하청은 실제로 원청이 사용사업주고 하청업체는 단순한 인력파견업체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현행법이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입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소위 컨베이어 벨트 형태로 일하는 조립공정이 아닌 간접 생산공정인 생산관리, 출고, 포장, 보전업무 등까지 포함해 제조업 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행해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차 하청의 경우도 원청과 '묵시적 근로자 파견계약'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규직과 혼재 근무를 하지 않고 하청노동자들만 일하는 블록화한 업무 역시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습니다.

문2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등 모든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판결인가요.

답2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 대상의 판결이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파견 증거를 기준으로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부품업체, 전자, 철강 등 제조업 사내하청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3 불법파견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답3 파견법 개정에 따라 제조업 등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원청 사용자는 2012년 8월2일 이후 단 하루라도 불법파견으로 일한 노동자를 즉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5년 7월1일 이후 입사해 2년 동안 파견노동자로 일을 한 경우 파견법에 따라 원청에게 '고용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05년 6월30일 이전 입사해 2년 동안 파견노동자로 일한 경우 구 파견법에 따라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의제'란 하청업체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원청의 정규직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견법에 따라 당연히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청사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② '고용의무'란 개정 파견법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에 자신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4 2년이 지나기 전 소속 하청업체가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답4 '2년'은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ㄱ사내하청 노동자가 ㄴ하청업체 소속으로 1년6개월 근무하다 ㄷ하청업체로 옮겨 6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잠시 쉬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완전히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다른 하청업체에서 일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원청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문5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를 적용받는 경우 원청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답5 고용의제의 경우 고용의제가 된 시점부터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관한 단체협약, 원청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을 차별하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더불어 임금차액지급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원청에 고용의무시점부터 이를 이행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고용의무 시점 이전까지 정규직과 다른 차별을 당했다면 이에 대해 원청과 하청회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법정최저임금

주요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등
최저임금	시급 5,210원	• 시간급 5,580원 • 일급(8시간) 41,680원 • 주40시간제 월환산액은 1,166,22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9호 최저임금 고시 (2015.1.1. 시행)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4,689원 (시급 5,210 ×0.9)	• 시간급 5,580원, 일급(8시간) 41,680원 • 주40시간제 월환산액은 1,166,220원	• 최저임금법 시행령 부칙 •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유효기간

바지樂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주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원고는 '바지락'에 실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원고 접수 및
edit@ilabor.org

●무료 구독 신청
각 지역 상담전화로 신청